전북현대, 쑤닝과 비겨도 조1위

내일 저녁 7시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예선 6차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4일(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장수쑤닝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예선 6차전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E조 5차전 전북현대와 FC도쿄의 경기에서 전북현대 김보경이 슈팅을 하고있는 모습.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내일(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장수쑤닝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예선 6차전을 치른다.

전북은 지난 예선 5차전 도쿄 원정에서 3-0 승리, 승점 9점으로 E조 1위로 올라섰다.

E조 2위와 3위는 각각 1점 차로 8점의 장수쑤닝과 7점의 FC도쿄이다. 예선 마지막 6차전을 앞두고 있는 전북은 최소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를 확정 짓는다. 현재3위(승점7점)인 FC도쿄가 승리해 승점이 동률이 되어도 상대전적(전북2승) 우위 규정에 따라 조 1위로 16강을 진출하게 된다.

전북은 250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이동국과 최근 공격 본능을 살린 한교원, 이재성, 고무열 등 공격진을 앞세워 승점 1점 확보가 아닌, 확실한 승리로 지난 중국 원정에서 겪은 패배를 되갚아 주겠다는 각오다.

이번 복수전에 앞장설 선수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단연 이동국이다.

전북에 온 이듬해인 2010년부터 7년 연속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고 있는 전북과 이동국은 현재까지 중국팀과 16경기를 치렀고, 이 경기에서 이동국은 무려 8골을 기록했다. 지난 2차전 중국 원정에서도 골을 기록한 이동국은 원정에서 2-3 패배 후, 장수와의 리턴매치가 두 달 후에나 있는 것을 아쉬워했을 정도로 이번 경기를 기다렸다.

최강희 감독은 "이번 경기는 지난 원정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와 더 나은 내용을 보일 것이다. 비겨도 되는 경기가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 확실한 조 1위로 16강을 진출하겠다"며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 어린이 팬들위한 특별한 선물 제공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외국인선수 4인방이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을 맞이해 어린이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전북은 지난 해, 에닝요-레오나르도-윌킨슨-에두 이 네 명의 외국인 선수를 캐릭터 로 디자인한 양말을 제작해 어린이 팬들에게 선물했다. 어린이 팬들의 좋은 반응을 보았던 전북은 올해도 '스페셜 어린이 양말' 시리즈를 제작한다.

올해는 새롭게 외국인 쿼터에 합류한 로페즈와 파탈루를 비롯해 레오나르도, 루이스가 주인공이 됐으며, 이들을 캐릭터로 제작해 오는 5월 4일 경기부터 시리즈별로 어린이 팬들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이 양말은 녹색 바탕에 네 선수들의 특징을 살리고 각 선수의 국기를 디자인해 제작 되었다. 양말은 약 3만 5천개가 제작 되었고, 전북의 홈경기 4경기에 나눠 시리즈별로 선물할 예정이며 첫 선물의 캐릭터 주인공은 '루이스 캐릭터 양말' 이다.

이번 스페셜 선물 제작에 참여한 루이스 선수는"작년 전북으로 돌아 왔을 때, 팬 들의 성원에 정말 기뻤고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다. 이렇게 전북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마침 어린이 날이 다가와 전북의 어린이 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또한 이제 나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인지 어린이 팬들을 볼 때 더욱 기분이 좋다."며 전했다.

/김민근기자

임실군씨름연합회, 2016 도민체전 2연패

임실군씨름연합회(회장 이기주)는 지난 1일 군산에서 열린 2016년 도민체전에서 지난해 이어 2연패(連覇)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임실군 씨름팀은 초.중등부 2위, 남녀혼합 일반부 1위로 종합우승을 2015년에 이어 2년째 우승하여 임실군이 종합9위를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임실 신평우 부군수, 최낙전 오수면장 등은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씨름장을 찾아 예선전부터 전대회 일정을 관전하며 씨름 연합회원들과 함성을 같이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임실군씨름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도민체전 우승을 계기로 8월 전북씨름왕선발대회 3위, 9월 여수직장인 씨름대회 3위, 11월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여자부 8강 진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오는 '오수의견문화제'에 씨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기자

데뷔 6년차 신지은, LPGA 텍사스 노스 숏아웃 승리 '감격'

2011년 투어 입성 132번째 대회 만에 우승컵 들어올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로 허민정 · 양희영 2타 차 역전 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6년차 신지은(24 · 한화)이 텍사스 노스 숏아웃(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생애 첫 우승을 안았다.

신지은은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라스 콜리나스 컨트리클럽(파71 · 646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신지은은 허미정(27 · 하나금융그룹)과 양희영(27 · PNS)을 2타 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2011년 LPGA 투어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톱10에 20차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지난 2012년 HSBC 챔피언스에서의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던 신지은은 본인 통산 132번째 대회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위로 출발한 제리나 필러(미국)에 4타 뒤진 채 출발한 신지은은 2번홀(파4)과 3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낚은 뒤 5번홀(파4)에서도 1타를 줄이며 공동 선두로 올랐다.

필러는 전반에만 보기 3개를 범하며 밀려났고, 신지은이 선두로 부상했다. 신지은은 후반 첫 홀인 10번홀(파5)에서 버디를 신고하며 챔피언조보다 먼저 홀 아웃을 했다.

필러 역시 데뷔 이후 톱10에만 26번 오르며 첫 우승을 노렸지만 보기 5개, 버디 3개로 2타를 잃으며 공동 2위(12언더파 272타)에 만족해야 했다.

전날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린 허미정(27 · 하나금융그룹)과 양희영(27 · PNS)도 나란히 이븐파로 경기를 마치며 필러와 함께 준우승을 기록했다.

중국의 펑산산은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로 5위

아리야 주타누간(태국)은 8언더파 276타로 6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신인왕 김세영(23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최나연(29 · SK텔레콤), 지은희(29 · 한화)는 동타를 이뤄 공동 7위(7언더파 277타)를 차지했다.

한편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체력 조절을 위해 이번 대회에 불참했고, 전년도 우승자인 박인비(27 · KB금융그룹) 역시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았다.

/김민근 기자

신지은은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라스 콜리나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텍사스 노스 숏아웃에서 생애 첫 우승을 안았다.

WTF 태권도 공연팀 전북도민체전 개막공연 펼쳐

군산 월명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6 전북도민체전 개회식에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태권도 시범단이 현란한 공연을 펼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 팀은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전주 비전대학교 태권도시범단 등 60여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는 내년 6월 22열릴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